

코뿔소와 펭귄의 슬픈 여행

- 희망을 찾아서 -

(『긴긴밤』을 읽고)

주장훈

『긴긴밤』이라는 제목과 커다란 코뿔소와 펭귄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책 표지. 코뿔소와 펭귄은 친구인 것 같은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코뿔소의 모습과 고개를 숙이고 있는 펭귄의 뒷모습, 그리고 웬지 쓸쓸한 바람이 부는 들판의 풍경을 보니 둘이 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긴긴밤’이라는 제목처럼 코뿔소와 펭귄이 험하게 길고 긴 밤을 보내는 여정을 쓴 책 같아서 궁금한 마음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노든이라는 코뿔소가 코끼리 고아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이야기이다.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코뿔소 노든은 부모 없이 코끼리들과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랐다. 나는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만 해도 무섭고 보고 싶어서 못 살 것 같은데, 부모가 없이 자란 노든은 얼마나 엄마, 아빠가 그리고 보고 싶었을까? 그래도 코끼리들과 함께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란 노든이 대단하다. 그런데 노든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코끼리 고아원에서 왜 나왔을까? 누가 억지로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코끼리 고아원이

안전하고 편안했지만 그 안에서 노든은 인간들에게 지배받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 그래서 푸른 초원에서 비도 맞고 열매도 따 먹고 다른 코끼리들과 뛰어다니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했을 것이다. 나도 학교나 학원에서 벗어나서 시골 친척 집에 가서 신나게 뛰어놀 때가 가장 신나기 때문에 코끼리 고아원을 나온 노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인공 펭귄의 엄마라고 할 수 있는 펭귄 치카가 죽는 장면은 너무 슬펐다. 노든과 긴긴밤을 함께 보내며 꽤 오랫동안 친구였던 친구 치카가 알을 안고 바다로 가는 도중에 죽는 장면은 정말 서운하고 가슴 아팠다. 고든은 동물원에 갇혀서도 안 울었는데, 치카가 죽을 때 우는 것을 보니 둘은 진짜 애정이 끈끈했나 보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안고 자던 인형이 있었다. 너무 오래되어서 실밥이 다 터지고 솜이 튀어나와서 여러 번 고쳤는데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나는 너무 슬펐다. 엄마가 위로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금도 그 인형이 보고 싶은데 함께했던 친구 치카를 잃은 고든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겠다.

그리고 초원에 사는 큰 코뿔소와 바다에 사는 작은 펭귄, 둘은 너무 달라서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서로 목숨을 지켜 주는 친구가 되다니 정말 놀랍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둘처럼 아주 달라도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나도 내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울 줄 알고, 믿음을 주는 친구,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행동하고 이야기도 잘 들어 주는 친구가 되어 주어야겠다.

치카가 죽고 나서 고든은 치카가 남긴 알을 들고 바다로 향한다. 그리고 고든은 그 작은 알을 키워 아빠가 된다. 내가 고든이었다면 남겨진 알을 돌볼 생각도 못했을 텐데……. 고든이 아빠가 되었을 때는 나도 부듯했다. 나도 노든처럼 무엇인가를 아끼고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싶다. 나는 7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다. 동생이 계란을 먹고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퉁퉁 부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자주 싸우지만 그때는 걱정이 많이 되었다. 동생이 알미울 때도 있지만 내 동생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잘 챙겨 주고 좋아하는 책도 많이 읽어 줘야겠다.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물이 무서워서 뛰어들지 못했을 텐데 두려움을 이겨 내고 넓은 호수로 뛰어든 주인공이 대단했고, 나도 그런 주인공의 용기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겁이 많은 편이다. 놀이공원에 가도 무서워서 회전목마와 범퍼카밖에 못 탄다. 그런 내가 4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생존 수영을 하러 갔다. 얕은 물에서 하다가 깊은 물로 들어가니까 빠질까 봐 무서웠다. 하지만 두려움을 참고 열심히 연습해서 앞새 뜨기와 다이빙을 해서 앞새 뜨기까지 성공했다. 다이빙대는 칠판 높이나 되어서 엄청 무서웠지만 꼭 참고 뛰어 보니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공도 처음에는 물이 무서웠지만 몇 번 도전해 보고 헤엄칠 수 있게 된 것을 보니 나와 비슷한 성격인가 보다. 주인공은 결국 끝도 없이 넓은 바다로 나아가서 자유롭게 마음껏 헤엄쳐 다닐 것이다. 나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꿈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멋진 게임 개발자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코뿔소 노든과 펭귄 치카, 주인공 펭귄, 그리고 그 친구들의 힘들고 슬픈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특히 코뿔소 노든이랑 주인공 펭귄이 이별하는 마지막 장면은 가슴이 아파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책의 마지막에 노든과 주인공의 크고 작은 발자국이 나란히 나오다가 나중에는 노든의 발자국과 주인공의 발자국이 따로 그려져 있는 장면은 그림만 있는데도 너무 슬펐다. 나는 계속 둘이 함께 걸어갈 줄 알았는데, 결국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정말 섭섭했다. 하지만 주인공들이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 것 같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인공들은 끝까지 희망을 꿈꾸었고, 결국 멋지게 그 꿈을 이루었을 것이다. 나중에도 노든과 주인공은 다시 만나게 되었을까? 나는 언젠가는 멋진 코뿔소와 펭귄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둘이 만나서 다시 즐거운 여행을 떠나기를 바란다.